장엄한 불사, 1400년만에 스크린 오른다

다큐멘터리 '신성함을 새기다'
일본 불상공예장인 '붓시' 다뤄
2년 전 작고한 장인 코린 선생
활동 모습 남아있어 더욱 의미

박영빈 객원기자



불상을 새기는 붓시. 사진출처=트리사이클



불상을 새기는 사이토 코린 선생(우)과 제자 세기코운(좌). 사진출처=트리사이클

1,400년간 불보살을 세상에 나타낸 사람들이 있다. 불교가 전래된 이래 대대로 불상을 만드는 장인들 '붓시' 들이다. 지난 6월 1일 미국의 불교전문지 '트리사이클' 은 붓시의 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 '신성함을 새기다(Carving The Divine)' 의 제작을 상세 보도했다.

붓시란 일본에서 불상을 조성하거나 불화를 그리는 전문장인들에게 붙는 칭호다. 6세기 중반 한반도와 중국에서 건너간 장인들이 처음 붓시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11세기에 들어 사찰이나 귀족들의 전속장인들이 아닌, 전문 불상장인들이 등장하면서 붓시라는 이름이 정착됐다.

붓시들은 일본에서도 엄격한 도제식 교육법으로 유명한데, 이들의 세계를 장기 밀착 취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독인 세키 유지로는 "불단을 만드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불교공예와 불상을 만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가업이다 보니 아버지를 따라 붓시들을 만나는 일도 많았다"고 다큐멘터리의 제작배경을 설명했다. 유지로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예술 영화를 만드는 일을 했고, 그제야 내가 자라난 환경이 독특하단 것을 깨달았다. 서양에 일본문화를 알리면서 내 정체성을 찾는 방법으로 현대의 붓시들을 다큐멘터리로 찍기로 마음먹었다"고 제작의의를 덧붙였다.

세키 감독이 선택한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붓시 세키 코운(45)과 그 스승인 사이토 코린(2016년 작고), 그 문하에서 공부한 붓시들이다. 특히 일본에서도 명장(名匠)으로 손꼽히는 사이토 코린 선생이 작고하기 직전의 활동모습을 담아 의의가 크다고 한다.

다큐멘터리에 참여한 코운 붓시는 "불상은 자비가 넘치는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 뒤에 담긴 장인들의 치열함과 엄격한 과정을 알아주길 바란다"며 참여한 의의를 밝혔다. 또 다른 붓시 콘노 코케이는 "불상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지만, 모든 기술 뒤에 형용할 수 없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며 불상을 조성하는 마음가짐을 보였다.

세키 감독은 "코린 선생이 살아 계실 때 '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 코린 선생은 '후대에 부끄러운 작품을 남기지 않는 것이 유일한 꿈' 이라고 답했다"며 이런 장인정신이 불보살을 세상에 나타내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작감수를 맡은 하라다 마빈 스님은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다큐가 아닌 불상을 조성하는 장인들의 정신을 오롯이 보여 준다"며 이번 작품을 통해 불자들이 자주 접하고 예경하는 불상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작팀은 촬영 중에 서양의 관객들이 불교와 불상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에 주목했다. 제작팀은 다큐멘터리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내용을 보충하면서 주제를 홍보하기 위해 짧은 강좌와 트레일러 영상을 제작했다.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 매체에 업로드 되는 영상들은 시리즈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신성함을 새기다' 는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 출품을 목표로 최종 편집에 몰두 중이다. 불교예술의 정수인 불상과 장인정신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에 세계인의 반응이 기대되고 있다.

中, 불교 상업화에 야외 대불조성 규제

중국 통전부 26일 발표



홍콩의 천단대불. 출처=인디아타임즈

중국정부가 중국 각지에 세워지고 있는 대불(大佛)조성을 규제하는 명령을 공식발표해 화제다. 이를 통해 불교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 5월 27일 '인디아 타임즈' 는 중국정부가 발표한 규제령에 대해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직속 기관인 '중국공산당 중앙통일전선 공작부(이하 통전부)' 는 보도 전날 야외에 대불 조성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명령을 공표했다.

이번 명령에 대해 중국 종교계는 자정능력을 잃고 지나치게 상업화된 종교가 본연의 모습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한편 최근 티베트 불교계에 대한 규제 강화와, 외국인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면서 상업화의 방지라는 구실로 종교박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통전부는 공산주의 이념으로 중국 내의 종교와 소수민족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5월 23일 통전부는 내부회의를 통해 거대 종교시설물을 통한 상업화가 그 정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각지에서 경쟁적으로 세우는 대불을 그 대표적인 예로 집었다. 실제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에서 허베이성(河北省)에 소재한 모 사찰은 대불을 통해 연간 약 1천만 위안(한화 약 16억 7천만원)의 수익은 낸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통전부는 각 지방정부에 대규모 야외 종교시설과 건축물의 건설을 규제하고, 종교의 상업화를 방지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사실상 더 이상의 대불과 대규모 종교시설의 건축을 금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 인민정치 협상회의의 종교위원회 위원장인 주 웨이쿤(Zhu Weiqun)은 "단속은 단호하게 진행될 것이며, 중도 포기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문화 대혁명 당시 폐쇄되거나 파괴된 종교시설들이 개혁개방과 함께 복구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각지에 대규모 시설들이 건립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거대한 불상들이 조성됐다. 대표적인 예로 장쑤성(江蘇省)의 영산대불(靈山大佛, 88m), 하이난성(海南省)의 남산관음(南山觀音, 108m), 허난성(河南省)의 노산대불(魯山大佛, 128m)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불의 상업적 이용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종교적 목적이 아닌 관광 상품을 위한 대불도 몇 곳에 건설 되었다고 통전부는 발표했다. 특히 관광지로 유명한 일부 도교사원의 경우 종교단체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베이징 민족대학의 교수 시옹 쿤신(Xiong Kunxin)은 "이번 명령은 정부가 종교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종교가 이익창출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덧붙여 "지나친 상용화는 종교가 가진 신성성을 더럽히고, 사회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백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본토에서 신앙을 가진 종교인은 2억 명이다. 약 7천 500개의 종교단체가 있으며 이중 불교사찰은 33,500개소이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티베트인은 개인적 사찰순례 지양하라"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중국의 티베트 불교 규제

티베트력으로 4월, 성스러운 달로 꼽히는 '싸가다와' 에 중국 정부가 법회와 순례자들을 감시하고 나섰다.

지난 6월 1일 'RFA(자유아시아 라디오)' 는 티베트 불교계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됐다고 익명의 티베트 현지 제보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티베트의 수도 라싸 출신의 제보자는 "라싸의 중국 공안당국이 티베트인 공무원,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법회나 개인적인 사찰순례 등을 지양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심지어 은퇴한 공무원들에게도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티베트력으로 4월인 '싸가다와' 는 티베트 불교에선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 열반이 이루어진 달이다. 이 달은 특별히 성스러운 달로 인식되어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순례자들이 라싸로 몰리고, 각종 법회와 불교행사가 봉행된다.



포탈라궁 앞을 순찰하는 공안들. 사진출처=RFA

RFA의 현지 소식통은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조캉사원 주변에는 티베트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라싸 현지의 공무원과 학생들의 참여 수는 예년에 비해 훨씬 적고, 행사들도 줄어들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또 "공안들이 조캉사원과 포탈라 궁전을 도는 길에서 불시에 순례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라싸의 사찰들은 보안유지라는 명목 하에 철저히 감시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최근 라싸에선 티베트인들의 공개적인 신행활동에 대한 감시와 제한이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일례로 은퇴한 한 공무원이 조캉사원과 포탈라 궁전 주변에서 오체투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당에 대한 충성도가 부족하다며 연금지급이 거부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소문의 여파로 포탈라궁 앞에서 오체투지를 하는 등 공개적인 신행활동이 줄어들었다고 최근 티베트를 여행한 몇몇 여행자들은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 인등표 출력 | 위패 출력
문자발송 | 기부금 영수증 |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